

SK,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빈커머스 지분 16.3% 인수

마산그룹 선제투자 성과 가시화
2년전 조건 4600억에 지분 매입
빈커머스, 작년 매출액 30% 성장
“향후 알리바바나 아마존 처럼
온·오프 결합 사업자 성장 기대”



빈커머스가 운영하는 빈마트.

/빈마트

SK그룹이 선제적인 베트남 투자를 통한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SK그룹은 베트남 마산그룹 자회사 빈커머스 지분 16.3%를 4억1000만달러(한화 약 46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SK가 2018년 마산그룹에 투자하면서 ‘선별적 우선 투자권리’를 행사한 덕분에 성사됐다.

빈커머스는 베트남에서 2300여개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다.

소매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2019년 12월 빈그룹에서 마산그룹으로 매각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성장하기도 했다.

SK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2019년 마산그룹과 동일한 조건으로 빈커머스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 높은 평가차익뿐 아니라 마산그룹의 집중 육성사업인 소비재에 대한 추가 투자 권리도

확보했다.

베트남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현대식 유통 시장이 연 25%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는데 빈커머스의 온오프라인 유통 비전이 주목받으면서 SK 지분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K는 이번 투자를 통해 더 강화된 마산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 베트남 내 온·오프라인 유통, 물류, 전자결제 등 주요 전략적 관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빈커머스가 향후 ‘알리바바’나 ‘아마존’ 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사업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투자는 동남아 시장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통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마산그룹은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

이며 “SK는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투자법인 박원철 대표는 “마산그룹은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며 “SK는 새로운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쑤잉 콩 탕 CEO는 “빈커머스는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업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고 소개하며 “이번 SK의 투자가 베트남 시장에서 빈커머스가 또 한번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는 2018년 8월 SK동남아투자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마산그룹 지분 9.5%와 빈그룹 지분 6.1%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규제완화 시동...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호가 상승세

광장아파트 6동 150㎡ 매물 28억
두달만에 호가 1.5억 ↑, 급매 27억
“분리재건축 소송 승소면 더 상승”

미성 91㎡ 매물 16.2억→17억 등
광장 주변 아파트 호가 상승곡선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급매가 속출하면서 호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장 선거에서 ‘양대산맥’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박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재건축 규제완화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돌입했지만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리 재건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광장아파트의 경우 6동(전용면적 150㎡)이 지난 5일 2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26억5000만원이 거래된 바 있다. 2개월 동안 호가가 1억 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면적형의 8동은 27억원에 급매가 나왔다.

11동(전용면적 183㎡)도 같은 날 30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은 지난 1월 2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1동은

전용면적 138㎡가 22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 17억원에 팔린 바 있다.

광장아파트는 분리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사업에서 제외된 1·2동 주민들과 영등포구청 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구청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는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지부동산 중개업자는 “광장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분리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승소할 경우 1·2동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시장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의도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매가 속출하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광장아파트 인근에 있는 미성아파트도 전용면적 91㎡가 1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1월 16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앞두고 있다.

여의도는 기존 지하철 5호선·9호선 외에도 경기 안산·시흥·화성을 연결하는 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안산선과 인천 송도와 경기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예정됐으며 현대백화점이 선보이는 ‘더 현대서울’이 최근 입점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도 사장님이다

200여개 흥삼 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탈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햏터그룹★

(주)햏터라이프 T. 070-7204-4515

정 총리 후임에 김부겸·박지원 등 거론

» 1면 ‘文 대통령, 재보선 후’서 계속

특히 행정고시(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구윤철 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과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까지 맡아 현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관료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 출신인 은 위원장은 호남권 여당 의원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행시 30회), 고희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행시 30회),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행시 28회) 등도 거론된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홍 부총리까지 교체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후임 총리 인선을 마무리한 뒤 후속 인사로 홍 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거취 문제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가운데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보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총리가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이에 정 총리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기용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 장관 30%’ 공약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차기 여성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